

보도일시

2025.5.23.(금) 즉시 배포

담당처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단장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계정에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악덕사업자로 보면서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하루하루 힘겹게 장사하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즉각 사과부터 하기 바랍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재명 후보가 ‘커피 판매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악덕사업자로 보았다’ 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5월 16일 이재명 후보의 유세 발언 중 일부를 발췌하여 비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내용과 취지를 철저히 왜곡·호도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계곡 내 불법영업을 단속하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 120원 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유럽의 관광지처럼 산책로도 정비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봄철에는 그림 그리기 대회, 여름에는 메기, 버들치 잡기 대회, 낚시 대회 이런 것 하고, 가을 되면 그림그리기 대회, 농산물판매하고, 화장실도 만들고 산책로 만들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해당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계곡 불법영업 단속 대상자들의 생계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악덕사업자로 보았다’고 조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 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끝>